

타이어, 중국산 반덤핑 종료 임박

9월26일 미국관세 철폐에 국내기업 긴장 ... 수출대책 마련 시급

미국이 최근 3년 동안 중국산 타이어에 부과해왔던 반덤핑관세가 9월26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국내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타이어의 미국수출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타이어 생산기업의 매출 가운데 미국수출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타이어 수출액 4430만달러 중 약 34%를 차지했다.

타이어 미국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미국수출은 전년대비 78.6% 늘었고, 2011년에는 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중국산 타이어의 반덤핑이 종료되면 가격경쟁력을 회복해 국내 타이어 생산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모았다.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연구원은 “반덤핑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 타이어는 현행 25% 관세에서 21%포인트 낮아진 4% 관세만을 적용받아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국내 타이어 생산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반덤핑 종료로 중국산 저가 타이어 수입이 활발해지면 미국시장에 교체용 타이어(RE)의 판매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삼성증권 윤필중 연구원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가 4%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미국의 RE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 이상 미국기업들의 공격적인 가격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덤핑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중국산 타이어가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것은 확실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1>